20041018a-024
* 관련 019-028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대영씨의 노래연습장면을 통해
장애인에게 노래가 무엇이길래 호기심을 갖게 된다.

이제 대영씨는 10년이 넘게 합창단 생활을 하면서
점점 가사가 흐릿해지고,
발성도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대영씨에게 노래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 나는 찬양하리라 한 곡을 통해 대영씨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020- 대영 입을 크게 벌려 다시 한 번 해보세요 .
021- 노래 한 곡 풀로 기록됨.

* 대영씨의 합창단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듦

강영이 - 노래 속에서 성장하면.. 노래를 하게 됩니다.
립승크 단원에서 솔로를 꿈꾸는.. 강영이.

20081027-144938 / 단원 옛 모습 발견.

20081031- clip13
강영이 솔로 연습? “똑바로 보고 싶어요” - 지혜씨네 집 연습 풍경
 / 지혜씨 집에서 연습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모습은 온전치 않아 ,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날 죄인처럼 멀리하면 외면을 하네요

*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노래도 있네.

강승연 솔로 연습
*하얀 도화지에 (노래끊기지 않음)
나는 그려요.
어른들이 잃어 버린
아름다운 세상을
하얀 도화지에 나는 그려요
웃으면서 남을 돕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무지개 보다 더 아름 다운 그런 멋진 세상을

20081102 중문교회 - 194226
* 주님만 (중문교회 공연)
김현군, 민기의 주님만 - 노래 끊기지 않고 관중 반응까지 담김.
* 나 (박순열/ 박지혜) - 노래 끊기지 않고 관중 반응까지 담김.

합창단 단원이 되면
립싱크로 무대에 서는 것도 어려워 하던 친구들이
점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합창단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심리적인 재활을 하게 됩니다.
장애는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익숙해 져야 하는 것입니다.

20081102 중문교회 - 194856
* 아버지 그 사랑 감사해요 / 곡중 솔로 강승연,박순열,박지혜
- 중문교회 촬영 소스를 같이 활용 할 수 있음.

holt2003 - audition-006
영은이 오디션

holt2002 - kangyoung-001

holt2005 - sunghyun-010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기쁨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높은 하늘과 푸르른 저 나무
모두 나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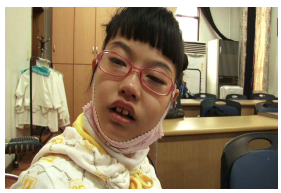
내게 음악 주신 분
이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니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모두 나의 찬양
할렐루야.. ~ 찬양을 드리자.

노랫말을 가지고 노래하는 기쁨과 의미를 설명하면 어떨까?
“노래는 선물이에요.

2010.10.20. 연습

20101020-001, 002
아베마리아 / 김신화

20101020-007
나의 노래는 내가 만든 노래는
희망넘치네, 샘물과 같이
목소리 높여서 노래 부르면
나도 날아 올라요



아름답고, 진실한 세상
다함께 만들어요
크게 외쳐, 외치리라
평화롭게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가요 ~
노래 끝까지.. 앞 부분만 없네.

1020-008~
엄마야 누나야

011-
순열씨 해봐 '엄마야 누나야'

012-
강아지똥..
강승연 노래 표정 참 좋다

024-
진규에게 엄마라 불리우는 사람은?
엄마 아니면 이모
엄마라 그러고 일도 잘 도와주고
똑똑해요, 눈치도 빠르고, 붙임성도 좋고

다들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야 누나야 당근 살자.. 들 에는 반짝이는 들 노래빛,
밖에누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당면 살자.. ‘ 대진이의 노래

재혁이의 엄마야 누나야.

음악치료, 합창연습 후 노래 하고
집에서 항상 노래해요
물어보면.. 얘기하고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
생활교사 - 이수미

026-
5일동안은 주야간으로 돌보고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로 알고
저희가 쉬는 날 3일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이모라고
신입직원, 젊은 사람에게 형 이렇게 하고
진규가 애기 때
여러분이 키워주셨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 많아요
평화동에도 엄마 있어요

“엄마, 엄마, 어마.... ”
엄마 사랑해?

033-034
주의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 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장애인들에게 노래가 주는 의미...) - 노래 끊기지 않음.

052-
어떤 사람이 떠올라?
대신 떠오르는 사람?
가족 우리 가족 샤론방

053-
옛날에 소망방에요 같이 살던 누나가 있었는데,

2010.10.18. 연습

그 누나한테 엄마 엄마 그랬어요
연세 많으세요
보육사가 있었는데,
그만 두면 엄마가 떠나는..

054-

20101018-017~019
엄마야 누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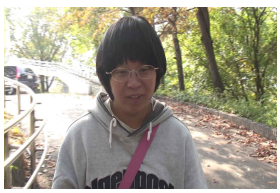
022-
노래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 속으로 노래가 나와요
윤정순

교회 가서도 노래가 좋아가지고 부르고 그래요
나의 기쁨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023-
괜찮아요
지휘자님 있을 때 재미있어요
다 좋아요
주께서 왕이시다.
주께서.. 아 까먹었어요

주께서 왕위에.. 안돼요.
토요일

지휘자님 있으면 노래 가르쳐 주고 참 좋아요
노래하면..)마음이 진짜로
참 좋아요 노래 부를 때



하나.. 좋아요.
상쾌해져요
노래 부르기가 좋고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주니까 좋아요
저에게 노래는요 사람들 기쁘게 해주는 거구요
관객들이 왔을 때 우리 공연 보러 올 때 되게 즐거워 할 것 같아요

2010.10,13 연습

20101013-001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주 따르 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 주따르 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003-
나의 주 참 목자 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 헤맬때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은 참 구주시라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은 자비의 주
우리의
주사랑.. 승리 주셨네
영광이 십자가를 새 생명 되었네.
거룩한 주의 ..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섬기며 찬양하리
주니의 선하심 외치리라 차된 평화 나누세
우리의 구원되신 주 온 세상 전하리라
주사랑.. ...
영광의 십자가를 새생명 되었네.

(송이의 입모양을 보며.. 드는 생각. 처음엔 띄엄 띄엄 가사를 맞추어 노래하고 입을 벌리기만 하지만 점점 송이의 노래가 완성이 되어 가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004-
새생명 되었네..노래의 끝

005-
010-
목이 아픈데 솔로는 왜해?
저 모르겠어요
(싫다는 얘기는 안해)
반주부터 시작..
나의 노래는 내가 만든 노래는
희망 넘치네 샘물과 같이

2010.10,13 연습

목소리 높여서 노래부르며
하늘로 날아올라...

011-

* 나의 노래는 내가 만든 노래는
희망 넘치네 샘물과 같이
목소리 높여서 노래부르면
하늘높이 날아올라요
아름답고 진실한 세상
다 함께 만들어요
세상에 .. 크게 외쳐 외치리라
평화롭게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의 파일.. 다른 노래 연습과 연결해서 뮤직비디오 만들 수 있을 듯)
함께 불러요.
목소리 높여서 노래 부르면,
하늘.. 날아 올라요.
아름답고, ... 만들어 가요.. 노래 끝가지 연결됨.
(녹음된 파일 있는지 싱크 맞추면 컨텐츠 될 듯.)

012-
*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
(승연이의 숨찬 표정..)
한솔이 진지한 표정

서울로 시집을 간 우리 누나 하늘로 시집 가신 우리 엄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나만 홀로 덩그라니 남아 있네
엄마야 누나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네.
나만 홀로 서성이네..

014-

016-

2010.10,13 연습

042-
뭐하러 왔어 진규야?
엄마야 누나야
(연습하러 와서 이것 저것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
들어가 앉아 있으라 그랬지?

니네들이라도 열심히 해.

043-
가사 따라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

... 강변살자.. 재혁아 강면이 아니고 강변살자.. 발음 똑바로
강변살자
강면.. 강변.. 강편.. 강변.. 강현.. 입 크게 벌리고
강변.. 강현.. 강변.. 강변.. 너네 둘이 집에서 연습해서
같이 했어 따로 했어.. 이왕이면 같이 연습하고 자

노래 시작..
갈잎의 모래..(노래_)
재혁아.. 뭘 연습했니
(입모양으로 가사를 알려주는 지혜씨)

강변.. 강편..

044-
다시 가사를 따라 읽는 중.

045-
소리 낼 건데, 저 쪽으로 가
서서 할건데, 앉아서 하면 목소리가 더 안 나와
손 차렷
누나가 저기 있을 건데,
다시 한 번 크게 입모양 크게 내고 배에 힘주고
다시 시작
엄마야.. 야.. 엄.. 이게 뭐야
누가 엄마를 부르는데,
진규.. 이쁘게
이쁘게 엄마야..

(우리가 쉽게 부르는 엄마는 진규와 재혁이 에게는 어렵기만 한 단어인지도 모릅니다.)

2010.10,13 연습

048-049

강변살자.. 또박 또박 가르쳐 주는 지혜씨
뜰에는 반짝이는 갈 잎의 노래.. 닢에 말고 잎에..
노래 모 말고 노래
갈잎의 노래
아니 갈 .. 잎에 미페.. 갈 잎에 잎에 노래 모래 노래 노 노 래 래 노 래
노 래 갈 잎에 니페 노래 모래 노래 노래 갈 잎에 갈 니페 노래 모래 아니
발음 듣고
갈 잎의 노래 모래 노래 모래 갈 잎의 노래 노래..

갈 잎의 노오래.. 모래

050-

재혁이 혼자 부르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빤짝이는 금 모래빛 뒤잇문 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053-
세명이서..

가사 몇 개 틀리는 거..

054-055
주님만

20101011 01~03

*엄마야 누나야

(숨 오랫 동안 소리내기)

노래를 잘 하는 틈에서

가사를 조금이라도 따라 하고 싶은 마음

03-

진규 작은 노래소리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지휘자 입모양 보면서)

04-

(재혁이는 제대로 못 따라하네.)

06-08

엄마야 누나야 곡중 솔로들 일어서서 노래

09-

진규 노래만

(시작부터 꽤 길게 찍힘)

12-

주만 바라 볼찌라

14-

* 주만 바라 볼찌라

하나님 인자한 .. 언제나 너에게 귀울이시니

* 엄마야 누나야

선생님 입 봐봐 강변.. 강면이 아니고

15-

연습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노래가 절로 나오고

연습해야돼 또 밤에

18-

진규 치료실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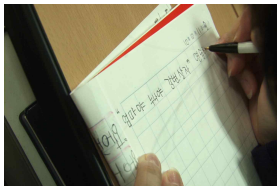
19-

엄마야..

진규야 나 엄마야 아니야?

나 누구에요?

엄마?



진짜?

우리 진규 오늘 뭐 했어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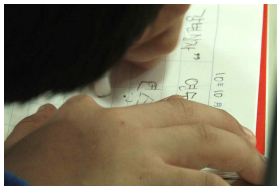
진규 오늘은 뭐 쓰고 싶어요

엄마야 누나야 쓸거에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연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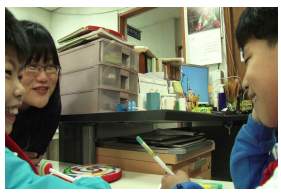
진규 써보자

(여러분은 누구를 엄마라고 부르시나요?)



22-
연습 글짜 쓰고 지우는 모습
(보는 사람 도와 주고 싶은 마음 들텐데)
지운 글씨 그대로..
연습
(진규에게 노래가 연습하는 것에서.. 언어가 되는 날이 있을 거에요)

23-
진규가 이년 전부터 한글 쓰기를 시작해가지고
책 읽는 것부터 하고 있거든요
정신지체 친구 자체가 조사를 빼먹는게 심해요
그래서 책 읽는거 글자쓰는거..
스토리 텔링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것으로 쓰는 훈련을 하는 거에요
훈련부터 시작해서 문장 완성 하는 거 이야기 주고 받는 거..
맨날 불러줘요. 자기 연습했다고 불러주고
진규가 아직 발음이 부정확해서 가사는 완벽하게 외웠거든요
진규한테 엄마?
저도 진규한테 엄마한테 불려졌고,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라고 하거든요
진규한테는 한 방에서 자랐으니까 그 엄마(생활교사)하고 관계가 뛰어나요
애착이나 감정이 강하거든요



진규한테 니 엄마 누구야 그러면 보통 그 엄마 하고요
저희 들한테 그때 그때 봐서 엄마, 선생님 기분 따라서 부르고
대준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엄마라고 하니까 대준이 엄마라고 하고
엄마라는 개념은 똑같이 있긴 한데,
상황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엄마라고 하고 엄마의 폭이 넓긴 하지만,
핵심은 같은 의미죠.

05-
진규노래, 재민이 반주
*엄마야 누나야

2010.10.06.

20101006-002~003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지혜씨 솔로 부분 /

004-
*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강승연 솔로 부분

005-
*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전체 부르는 부분
강영이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
재혁이 자신있는 부분인든.. 열심히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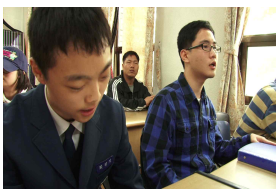
내 모든 삶 당신것이니..
온맘다해. 노래 끝까지. 재혁이 타이트샷

006-
멋진 단복을 맞춰 주실 거에요

011-
*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 합니다.
(노래하는 표정 좋아요)
(립싱크도 점점 입모양이 비슷해지고, 가사가 맞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화음을 내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바랄 수 없네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입모양 위주의 움직임으로 기록됨) - 노래 끝까지 기록 됨.

012-
* 다 함께 감사해
(밝은 표정으로 노래하는 합창단 개별 스케치)
(손으로 장단 맞추는 혜영씨)

015-022
* 주께서 왕이시라
앞 소절만.



016-
가사 따라 읽기
020-
몇 명씩 해보기

2010.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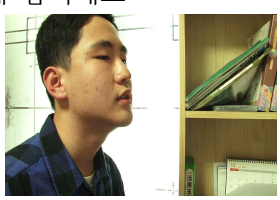
023-
*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가사를 따라 부르지 못하는 재혁이)

025-
지혜씨..
인생은 들의 풀 같은 풀꽃과 같도다
바람의 불어오고 지나가는 볼 수가 없지만

026-

033-
노래부르는 거 너무 재미있어요
집에서 찬양 막 흥얼 거려요
035-
요즘 합창단에서 부른 노래
기분이 좋으니까..
예수 내주여
많고 많은 사람중에 나를 택하사
죄를 사하시고,
자녀 남자 꺼 따라해 버렸다.
036-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엄마가 전혀주셔서 알았는데,
처음에 떨려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한테 레슨 해달라고 했어요
되게 떨렸어요
그게요
그걸 위해서 친구들한테도 말했고,
선생님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많이 응원해주고,
되게 고마운데..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0633-전 사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 가면 하나님부터 생각나요
비록 가스펠 곡이 아닌 다른 곡에도 주님이란 가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 가슴이 뭉클해져요
0857-찬양사역자, 시시엠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039-
아무 생각없이 노래가 좋아서..
어릴적 추억 속의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



2010.10.06.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나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 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를 부르면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들려주고 싶던 그분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 하네, 내 노래.
됐습니다.

0220
내가 당신을 위한 찬양사역자가 되어서
무대에서 관객들과 호흡을 맞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동을 못 이겨 감동의 눈물도 흘리는
찬양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의 노래” 함부영

2010.10.06.